

개혁주의 문화철학 시론

이 경 직

백석대, 기독교철학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개혁주의 문화철학 시론을 세우는데 있다. 개혁주의 문화철학의 토대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모토를 지니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있어야 한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창조의 선함과 죄의 악함 사이에 긴장이 있으며, 그 긴장은 이 세계의 끝에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이 세계관은 세속 문화를 무시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나, 세속문화와 기독교가 양립가능하다는 혼합주의적 세계관보다 더 좋다. 개혁주의 세계관 덕분에 우리는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고 세속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 문화들 안에 있는 죄의 추함을 봄으로써 이 문화들을 개혁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개혁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삶의 모든 영역들 내지 모든 문화는 우주적 그리스도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그분을 통해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이 이 세계의 끝에 일치할 수 있다. 이는 선교가 문화소명의 완성이며, 문화소명이 교회 선교에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18세기 말엽 유럽에서 문화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이후 나온 문화 상대주의의 난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문화 개념은 17세기 계몽주의에 반응한 결과였다. 유럽에서 낭만주의는 문화에 나타난 보편적 합리성과 보편적 의미를 거부했으며, 문화의 개별성을 강조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보편적 진리란 없으며, 합리성은 가면을 쓴 권력의지이다. 이러한 발전은 결국 진리의 파편화와 지적 회의주의에 이른다.

개혁주의 문화철학이 긍정하는 명제적 계시의 객관성은 문화의 아르키메데스적 지점을 제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지식의 주관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문화를 만들고 개혁하는데 있어 우주적 그리스도와 협력하도록 도와준다.

주제어: 문화철학, 개혁주의, 보편성, 주관성, 합리성, 포스트모더니즘

1. 들어가는 말

21세기 한국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문화 또는 문화콘텐츠이다. 백석대 기독교철학 전공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기독교문화콘텐츠’를 주제로 2단계 BK21 사업을 7년간 지원받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2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 및 사업팀의 주제에서 ‘문화’ 또는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화는 비기독교인에게뿐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하다. 인간의 제반 활동과 그 결과물인 문화가 지적 정보 및 감정 등을 전달하는데 주요한 매체가 되며, 21세기에 새로운 매체를 통한 문화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정신의 구현인 문화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놓고 일종의 문화 전쟁 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¹⁾ 또한 교회는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사회와 만나며, 기독교 복

1) 장경철, 『장경철 교수의 문화 읽기』(서울: 두란노, 2001), 15, 17.

음을 사회에 전달하는데, 한국 교회는 한국 문화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대중문화와의 관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²⁾

또한 한국 교회는 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태도를 취해 왔다. 보수주의 계열의 신자들은 개인적 신앙을 중요하게 여겨 문화를 소홀하게 대하는 일종의 방주신학을 좇았으며, 자유주의 계열의 신자들은 문화적 적용을 중요시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필자는 일반 문화의 일방적 수용을 통한 문화 우상화를 피하는 동시에 문화를 기독교와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태도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필자에 따르면, 문화는 기독교와 분리되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 표현이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활동이며 결과물이기 때문이다.³⁾ 장경철의 지적처럼, 문화 우상숭배는 “인간의 종교성과 죄성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우리는 문화를 외면하기보다 복음 전파의 계기와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⁴⁾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좁은 의미의 구속, 즉 개인 영혼의 구속만을 강조하는 방주신학적 세계관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창조신학에 바탕을 두는 개혁주의 세계관이 오늘날 문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세우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 입장은 1960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73년 ‘시카고 선언’(The Chicago Declaration)에서 가

2)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서울: 장신대 출판부, 2004), 5f.

3) Henry R.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 역(부산: 성암사, 1979), 5.

4) 장경철, 『장경철 교수의 문화 읽기』, 86ff.

장 잘 표현된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내세만 강조하는 신학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⁵⁾ 필자는 기독교의 계시가 삶의 체계인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성육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성육신 과정에 예외가 되는 삶의 영역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⁶⁾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듯,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께 문화명령을 위탁받은 왕으로서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가 바로 문화이며,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역사 속에서 성취된 모든 문화도 받아들여진다.⁷⁾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세만 강조하는 입장도 피하고자 한다.⁸⁾ 필자는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추함을 모두 인정하며 양자의 긴장 가운데 문화의 양면성을 모두 보는 변혁적 세계관이 개혁주의 문화철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필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구체화해야 하는⁹⁾ 동시에 이

5)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옮김 (서울: 엠마오, 1984), 7.

6)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1), 5f.

7)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서울: 총신대출판부, 1992), 12-20.

8) 원래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서울: IVP, 2000)의 원 제목은 『하늘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Heaven Is Not My Home: Learning to Live in God's Creation*)이다. 원 제목은 하늘과 땅 모두 거둬나야 하는 장소임을 강조하면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한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암시한다.

9) 한스 로크마커, 『예술과 기독교』, 김현수 옮김(서울: IVP, 2002), 39.

과정에 개입되는 죄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추함 사이의 긴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문화철학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여긴다.

2. 문화 개념과 문화상대주의

필자는 개혁주의 문화 철학의 구도를 그려보기 전에 먼저 문화 개념의 성립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주류가 다원주의와 문화상대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를 문화 개념의 성립 과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원주의 문화와 문화상대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 진리의 절대성을 문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지 단서를 찾고자 한다.

1) '문화'의 어원적 배경

원래 문화(culture)라는 말은 땅을 갈거나 경작한다는 의미의 라틴어 콜레레(colere)에서 나왔다.¹⁰⁾ 이 개념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자연(nature)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땅뿐 아

10)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31.

나라 정신이나 마음, 감정을 닮는 일도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는 유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전달되는 인간 활동과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로서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뜻한다.¹¹⁾ 보다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문화는 자신의 생각(지적 측면)과 감정(정서적 측면), 행동(의지적 측면)을 조직화하는데 사용되는 형식들의 통합적 체계이다.¹²⁾ 예를 들어, 언어와 관습, 도덕, 경제, 기술, 예술, 건축 유형, 놀이 양상, 법 체계, 종교, 교육 체계, 양육 체계 등이 문화에 들어간다.¹³⁾ 동시에 보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차원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활동 결과(예: 고전음악)이나, 여가 시간에 즐거움과 오락을 얻기 위해 하는 활동(예: 대중문화)을 뜻하기도 한다. 후자는 오늘날 문화산업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활동이다. 오늘날 문화, 특히 대중문화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즐거움과 오락을 주는 활동 및 그 결과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¹⁴⁾

기독교적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하자면,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경작하는 일이다.¹⁵⁾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자신의 본질을 얻는 종교적 존재이기에, 그에게 문화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그에게 주신 사명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기독교)는 문화의

11)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10f.

12)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164f.

13) Anthony O'Hear, "Culture," in Edward Craig(ed.),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London: Routledge, 1998), 746.

14) 장경철, 『장경철 교수의 문화 읽기』, 21-23.

15) 리처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38, 40; 웨버, 『기독교 문화관』, 13.

일부가 아니라 문화를 결정하는 요소이다.¹⁶⁾ 달리 말하자면, 문화는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¹⁷⁾

2) 문화 개념의 출현과 문화상대주의

문화 개념을 위와 같이 이해할 때 우리는 인간이 이 땅에 있었던 순간부터 문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문화 개념이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일과 그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영혼이 있지만 서양에서 인간이(신체와 독립된) 영혼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한 것은 기원전 4세기 말 플라톤에 와서였다. 이처럼 인류가 있었던 때부터 문화는 있었지만, 문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이었다. 문화 개념이 엄밀한 학문 용어로 사용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티러(E. B. Tyler)는 『원시 문화』에서 전체적 삶의 방식을 이루는 요소들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문화를 ‘저 복잡한 통일체’(that complex whole)라고 정의했다.¹⁸⁾

그런데 문화 개념이 본격적 연구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문화는 문

16)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1.

17) *Ibid.*, 30.

18) E. B. Tyler, *Primitive Culture*(London, 1871). 1986년에 Peter Smith Publisher에서 이 책의 1부에 해당하는 *The Origins of Culture*가 다시 나왔다.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Civilizatio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2(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7), 274 참조.

명(civilization)과 구분되기 시작했다. 야만(babbarism) 개념과 대조를 이루는 문명 개념과는 달리 문화 개념에는 그러한 대조가 없었다. 문화(culture)라는 표현은 원래 ‘땅을 경작하다’는 농경문화적 표현이었으며, 도시 생활을 연상시키는 문명이라는 표현과는 달랐다. 이 시기에 문명은 소박한 시골생활과 대조를 이루는 세련된 도시생활을 떠올렸다. 그 결과 문화는 인간 삶의 정신적 측면을, 문명은 그것의 물질적 측면을 대표하게 되었다.¹⁹⁾

19세기 초반에 문화를 문명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배후에는 그 당시 등장한 산업문명과 그것의 철학적 귀결인 기계론적 철학에 대한 낭만주의의 반발이 있었다. 새뮤엘 테일러 콜레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와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등은 문화가 자연적 성장을 나타내는 은유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적’이라는 개념과 ‘기계론적’이라는 개념을 대조시켰다. 낭만주의자들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물리학과 역학에서 찾지 않고 생물학에서 찾았다. 물리학과 그 토대인 수학은 근대과학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일종의 보편학(scientia universalis)을 추구하고 있었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철학자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꿈꾸었던 세계도시주의(cosmopolitanism)을 학문의 영역에서 이루고자 했다. 수학과 물리학은 그들에게 보편화할 수 있는 계량화(quantification) 수단을 제공했다. 물리학과 역학을 사회 모델로 삼은 사람들은 사회와 문화의 발전을 일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으로 여겼다.

인도와 페르시아, 중국의 문명들을 접한 낭만주의자들은 이에 반

19) *Ibid.*, 273.

말해서 사회와 문화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자기 고유의 발전을 이룬다고 여김으로써 다선적이며 다원론적인 문화관을 내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문화의 보편성에 맞서 민속과 민족전통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그들은 민족마다 고유한 문화와 예술 배후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전제들을 찾고자 했으며, 서구 문명의 기준에서 각 문화의 특수성을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일을 피하고자 했다.²⁰⁾ 예를 들어, 헤르더(Herder)는 인류의 통일성과 진보 개념에 반대하면서 인간 사회가 다원적이며, 그 사회들의 가치가 서로 통약될 수 없다고(incommensurability) 강조했다. 그는 각 사회의 유기적 본성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중심화(centralization)에 저항한다. 낭만주의자들이 문화에 대해 물리학의 인과적 설명을 포기하고 의미를 통한 설명을 채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²¹⁾ 예를 들어 스펅글러(Spengler)가 보기에 문명은 지역적 성격을 지니는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다.²²⁾ 그 결과 문화는 다원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²³⁾

18세기 이전까지 비기독교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합리주의자들로서 이성을 통해 실재에 대해 참된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낙관했다. 18세기에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역사와 전통 속에 있는 사회의 특수성이 강조되었으며,²⁴⁾ 실증주의가 내세웠던 일

20) *Ibid.*, 273.

21) O'Hear, "Culture," 746.

22) O. Spengler, *The Decline of the West*, ed. by H. Werner(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23)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40-45.

24) 프란시스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서구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 김기찬 옮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78-184.

직선적 사회진화이론이 거부되었다. 문명은 기술 발전을 통해 계속 축적되는 보편적인 것인데 반해 문화는 인간이 삶과 사회의 목적을 해석하고 철학과 종교, 예술 등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표현한 것이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문화를 유럽 문화의 가치 체계에 조화해서 평가되어서는 안 되었다. 낭만주의와 더불어 유일한 문화(the culture) 개념에서 많은 문화 가운데 ‘하나의 문화’(a culture)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낭만주의에 따르면, 각 문화는 할 수 있는 한 그 문화 내부의 논리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²⁵⁾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문화상대주의가 19세기 진화론에 입각한 서구문화 우월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사조이며, 문화 개념의 등장 배후에 문화상대주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각 문화는 그 자체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²⁷⁾

3) 예술에 나타난 문화상대주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문화상대주의는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른다. 문화상대주의에 이르는 낭만주의는 보편적 문화관을 주장하는 모더니즘을 반대하면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술에서 근대주의자(모더니스트)들은 초월성과 영속성,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다양성과 일시성, 익명성을 추구한다. 근대주의자들이 예술을 내적 구조의 차원에서만 분석되는 텍스트로

25) Williams, "Culture and Civilization," 274f.

26) O'Hear, "Culture," 746f.

27)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26.

여긴 반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텍스트를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 읽고자 한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텍스트는 인간의 삶과 사회, 자연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읽혀져야 하며, 그 결과 텍스트의 의미는 수용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²⁸⁾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르면, 의미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특정 시기의 사회에 의해 구성될 뿐이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인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인간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존재하며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있기에 개인의 독자적 정체성을 주장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각 문화가 고유한 현실을 형성한다고 여기기에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휴머니즘을 거부한다.²⁹⁾

이러한 입장은 미술에서 후기 인상과 미술로 나타났다. 인상과 화가 모네(Claude Monet, 1840-1926)와 르느와르(Pierre Auguste Renoir, 1841-1919)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화폭에 담았지만, 개체 배후에 있는 실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세잔느(Paul Cezanne, 1839-1906)와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 고갱(Paul Gauguin, 1848-1903) 등 후기 인상과 화가들은 보편적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세계관을 과편화를 통해 표현했다.³⁰⁾

이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78년 필립 존슨(Philip Johnson)이 뉴욕에 설계한 37층짜리 AT & T 건물은 바로크 양식의 아치형 진입로를 갖추으로써 다윈주의를 대변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각 시대마다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모두 인정하기에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문

28) 진 에드워드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오수미 옮김(서울: 예영, 1998), 117-119.

29) *Ibid.*, 197f.

30) 쉘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28.

화 환경을 본뜬 테마 공원이나 쇼핑 몰이 각 시대의 역사를 병렬하고 있다. 전체를 통일하는 원리에 따라 분업 체계가 잡혀 있는 근대적 공장과는 달리 테마 공원이나 쇼핑 몰은 각 시대의 고유성을 전시할 뿐이며, 그 전시물 사이의 통일성은 없다. 수용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각 시대의 문화를 즐기면 될 뿐이다.³¹⁾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을 강조하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 질서에 대해 저항하며, 전통을 새롭게 강조한다.³²⁾ 오늘날 각 민족과 국가마다 전통 문화 복구에 관심을 쏟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전통 문화를 복구할 때 그 내용보다 겉모양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³³⁾ 그들에게는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적 의미란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런 방식으로 역사의 차이를 없애는 일은 정신분열적 모방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편적 의미를 해체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철저한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진리 개념은 상대적이 되어 주관적 사실과 객관적 뉴스 칼럼이 서로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³⁴⁾

추상적인 철학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는 예술을 보면,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다.³⁵⁾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하나의 단일한 양식 대신 많은 양식의 콜라주로 이루어진다. 근대주의자들이 과거를 현재와 무관하게 여겨 버렸다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과거를 마음껏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정규 방송이 근대주의를 대표한다면 새롭게 등장한 케이블 TV는 포스트모더

31)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143-146.

32)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18-21.

33)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182.

34)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50.

35)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115.

니즘을 대표한다. 이제 시청자는 현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정규방송뿐 아니라 텔레비전의 과거 역사를 보존하는 케이블 TV를 통해 모든 과거를 쇼핑하듯이 같은 시간대에 병렬적으로 볼 수 있다.³⁶⁾ 그 결과 케이블 TV는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하며 각 시청자층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없게 된다. 시청자 사이에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구현되어 소위 게토(Ghetto)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예술 작품에서 시간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추구했던 근대주의자들과는 달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예술 작품을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덧없는 예술을 추구한다. 그들은 퍼포먼스(performance)라는 예술 양식을 선호한다.³⁷⁾ 이제 예술 작품 자체는 미술관에 남아 있지 않으며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담은 사진 기록 등만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3. 문화의 객관적 토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의 문화 개념은 기독교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기독교 선교를 일종의 문화제국주의라고 비난하게 했다. 문화상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서구의 문화 개념 등장은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다.³⁸⁾ 하지만 그 결과 서구의 문화 개념은 시간

36) *Ibid.*, 121-123.

37) *Ibid.*, 125.

38) Lamin Sanneh, *Religion and the Variety of Culture. A Study in Origin and Practice*(Valley Forge, Penn.: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1f.

을 넘어서는 보편적 진리 개념을 포기하게 하였다. 사실 서구의 근대주의 역시 중세 때까지 내려오던 기독교 세계관을 포기함으로써 보편적 의미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주의는 사람들의 삶을 조작하는 권위주의적인 절대주의 국가를 통해 보편적 의미의 공백을 대신했을 뿐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의 독특성과 우위를 정당화했지만, (홉스(Hobbes)와 같은) 근대주의자들은 사람을 기계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을 절대주의 국가의 조작 대상으로 보았다.³⁹⁾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근대주의의 이러한 약점을 폭로했을 뿐이다. 그들에 따르면, 보편적 의미란 없으며 특정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가 보편적 의미로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서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진리 주장 배후에 일종의 권력에의 의지(Willen zum Macht)가 숨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종의 결정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각자의 의지가 충돌하는 경우 그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성적 해결이란 인간의 원초적 욕망 또는 의지의 가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구의 문화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욕구 등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결정한다는 일종의 결정론 내지 환원론(예: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주의)에 빠지게 한다.

쉐퍼는 현대 문화의 이러한 절망을 이미 잘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르네상스 사상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가 이미 현대 문화의 절망을 예견했다. 다 빈치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에게서 출발하여 수학의 논리성과 합리성만 추구한다면 개별자와 역학에만

39)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87-291, 299.

이른다. 유한한 인간은 개별자들에게 통일성과 의미를 줄 수 있는 보편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⁴⁰⁾ 사르트르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준거점인 하나님을 떠날 때 현실이 부조리함을 보여준 점에서 옳다.⁴¹⁾ 필자에 따르면,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만이 개별자들에게 통일성과 의미를 줄 수 있다. 절대자가 있어야 지식과 윤리, 예술 등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를 떠난 현대 문화는 문화상대주의의 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경우 우리는 자신의 개별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미적 기준이 합리적 기준을 대체하게 된다. 그 결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도덕은 보편적 진리에 근거를 두기보다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 기준은 진리 여부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있다.⁴²⁾

이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유주의와 모더니즘 계열 교회가 쇠퇴하는 반면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번창하지만, 로날드 사이더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서울: IVP, 2005)에서 잘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수준은 비그리스도인의 윤리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⁴³⁾ 사이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낙태율과 비그리스도인의 낙태율은 거의 차이

40) 프란시스 웨퍼, 『프란시스 웨퍼 전집 I: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90f.

41)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76-178.

42)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242-245.

43) *Ibid.*, 262f.

가 없다. 현재 한국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한국 사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점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보다는 교회가 제공하는 문화와 위로에 더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현실도 포스트모던적 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진리 선포 여부에 두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욕구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화에는 인식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 가치적 차원이 있다. 각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지식이 옳은지 가르쳐준다. 또한 각 문화는 그 지식을 음악이나 미술, 춤, 연극, 영화, 문학 등의 매체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무엇이 아름다운지 가르쳐준다. 그리고 각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전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⁴⁴⁾

이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처럼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예술은 분열을 경험한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보편적 의미를 잃어버렸다.⁴⁵⁾ 포스트모더니즘의 보편성 상실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상대주의를 좇으면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비합리적 종교라는 비난을 근대주의로부터 받아왔던 기독교에게 도움을 주었다. 기독교도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하나의 문화(a culture)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문화적 가치를 상대화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게토화되는 위험에 빠졌다.⁴⁶⁾ 특정 시점

44)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166-168.

45)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175f.

자군이 특정 케이블 TV의 고객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도 다른 문화와 단절된 하위문화로서 자신만의 서점, 현대음악, 텔레비전방송망, 학교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 현상이 기독교에 언제나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근대주의의 영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독교는 숨 쉴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더 강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이다.⁴⁷⁾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때 기독교는 자신의 채널과는 다른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보편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기 쉽다. 또한 진리보다 욕구 충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보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기 쉽다. 오늘날 영적 헌신 없이 기독교 문화만 즐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nominal Christian)이 많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⁴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더구나 포스트모더니즘과는 달리 기독교에는 문화의 과편화를 극복할 좋은 세계관이 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혈족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에 사회적 불평등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다.⁴⁹⁾ 이제 기독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굴복하기보다 포스트모더니즘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⁵⁰⁾

46) *Ibid.*, 179f.

47) *Ibid.*, 185.

48) *Ibid.*, 262f.

49)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54, 156.

50)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147-149, 195.

화란의 기독교철학자 도예베르트는 18세기 낭만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생긴 문화 개념의 함의를 잘 읽어낸다. 그에 따르면, 가치중립적인 문화란 없다.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있으며, 그 세계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문화를 알려면 세계관을 알아야 한다.⁵¹⁾ 그런데 그에 따르면, 각 문화가 시대정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주장하듯이 각 세계관도 나름대로의 고유성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어느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주의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즉, 순수하게 이론적인 출발점이란 없다. 여기까지 볼 때 그도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니체가 합리적 논의의 배후에 권력에의 의지가 숨어 있다고 본 것과는 달리 도예베르트는 합리적 논의와 문화 뒤에 종교적 출발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성을 보편성의 근거로 삼은 근대주의자들과는 달리 도예베르트는 인간의 마음(heart)을 보편성의 근거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마음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이 시작되는(잠 4:23) 곳이다. 그에 따르면, 개별 문화의 한계 속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초월적 존재와 만나는 마음을 통해 개별 문화를 넘어서는 초월적 목적과 의미를 향할 수 있다.⁵²⁾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문화를 특정 시공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에 도예베르트는 개별 문화들을 넘어서 개별 문화들을 평가할 수 있는 초월적 토대를 확보한 셈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문화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는 모더니즘과(형성기에 있던) 포스트모더니즘

51)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14.

52)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231-233.

의 대립을 이성과 감정, 보편적 문명과 개별적 문화 사이에 성립하는 대립으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종교적 신앙 내지 세계관 사이에 있는 대립으로 본다.⁵³⁾ 이를 통해 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카이퍼가 일반은총의 능력에 자유를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며, 기독교에 뿌리를 내린 문명만이 참된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⁵⁴⁾ 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꿈으로써 모든 문화 영역에 기독교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⁵⁵⁾ 도예베르트나 카이퍼는 헤겔의 종합(synthesis)에 반대하여 반정립(antithesis)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별 문화들을 연결해주는 보편적 원리를 부정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닮았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문화에 대해 반정립으로 내세우는 기독교 문화가 보편적이고 객관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하위문화들에 대해 관용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는 다르다.

53) *Ibid.*, 250-252.

54) *Ibid.*, 177-180.

55) 웨버, 『기독교 문화관』, 14f.

4. 기독교와 문화

1) 세계관의 표현으로서의 문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종교가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반박하고 문화의 뿌리가 종교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틸의 표현처럼, “모든 문화는 종교에 의하여 활기를 띤다.”⁵⁶⁾ 달리 말하자면, 기독교는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근본 방식 내지 틀을 제공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화에 전제로 작용한다.⁵⁷⁾ 또한 기독교의 복음은 문화를 통해 표현된다.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이 바로 기독교 문화이다.⁵⁸⁾ 예술 등과 같은 문화는 세계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문화의 올바른 전제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 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세계관이 있다. 기독교를 세상 문화와 분리하려는 내세지향적 세계관과 기독교를 세상 문화와 종합하려는 세계관, 기독교를 통해 세상 문화를 변혁하려는 세계관 등이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예술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손상받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아퀴나스는 기독교와 세속문화의 관계를 종합이라는 모델을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비기독교철학자의 가르침을 혼합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1365년 안드레아 다 피렌체(Andrea da Firenze, ?-1377)가

56)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54.

57)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9.

58) L. 뉴비긴, 『현대 서구문화와 기독교』, 나동광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10.

플로렌스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예배당에 그린 프레스코화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그림 가운데 보좌에는 아퀴나스가 앉아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 등 비기독교철학자들이 기독교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와 나란히 놓여 있다.⁵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신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북유럽 화가 얀 반 아이크(Jan van Eyck, 약 1390-1441)는 빛과 공기를 마음대로 그리면서 자연을 강조하는 풍경화를 그렸다. 벨기에 겐트(Ghent)의 성 바본(St. Bavon) 대성당에 있는 ‘어린양 경배’(Adoration of the Lamb, 1432)에서 얀 아이크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면을 그렸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이 그림의 배경이 매우 사실적 풍경을 담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신 분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⁶⁰⁾ 네덜란드 화가들의 사실주의 화풍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강조하는 개혁신주의 세계관이 있었다.

니버(Niebuhr)에 따르면, 기독교 안의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은 기독교 역사에서 모두 나타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의 세계관을 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세계관의 등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다고 확신한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해석자들의 지혜를 초월하시면 그들의 부분적 통찰과 그 결과 나오는 견해 충돌을 이용하신다.⁶¹⁾ 게다가 그에 따르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한 유형의 세계관에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어렵다.⁶²⁾ 니버는 기독교 문화의 바람직한

59)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58f.

60) *Ibid.*, 76-79, 122.

61)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9f.

62) *Ibid.*, 51.

모델을 하나로 제시할 수 없는 까닭을 인간의 부패성에서 찾는다.⁶³⁾

니버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문화를 보는 여러 시각들을 충실하게 소개하며 각 시각들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니버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현 상황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고 여기며 각 시각들의 충돌점이 종말론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절대적 진리기준을 알 수 있다는 입장과 각 입장들을 병치해놓는 포스트모던 입장 사이에 자리 잡는 셈이다. 그는 완전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완화된 형태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어떤 시각과 입장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회의론에 동조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눈을 가린 채 코끼리를 만진 사람들이 각기 ‘코끼리는 딱딱하다’, ‘코끼리는 부드럽다’라고 주장할 때,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지만 코끼리의 어느 부위를 만지고 한 주장인지를 이해하는 경우 두 주장은 모순되지 않고 전체적 이해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전체적 이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각각의 주장을 통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각 주장이 코끼리의 어느 부위가 관련된 주장인지를 알아야만 각 주장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니버의 이러한 입장을 더 밀고 나가면, 실질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입장들에 대해 관용을 권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 다양한 세계관들이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는 니버의 시각 대신, 변혁적 모델을 선택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이(비록 약점이 있

63) 웨버, 『기독교 문화관』, 15.

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여기는 입장을 택하고자 한다.

2) 개혁신주의 문화철학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낭만주의는 인간 이성을 절대기준으로 삼은 18세기 계몽주의에 반기를 들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도록 부추겼으며, 그 결과 성경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기독교를 이성적 종교로 만들고자 했다. 이에 대해 낭만주의는 주관성과 개인적 정서를 옹호함으로써 계몽주의적 신학에 반발했으며, 이후 실존주의가 나타날 길을 열어주었다. 낭만주의는 성경의 기적 등을 비신화화려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기독교에서 종교적 체험,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자유주의 신학을 낳았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주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부르너(E. Brunner)나 바르트(K. Barth)처럼 기독교에서 합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신학을 낳게 했다.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성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제적 진리(propositional truth)를 기독교의 진리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그러한 신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처럼 적어도 현재 우리가 절대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18세기 계몽주의처럼 이성만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면 신앙의 정서적, 주관적 요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역

할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앙의 정서적, 주관적 요소만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신앙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주관화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독교는 객관적 도덕과 진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영적 대각성 운동의 2세대가 활동하던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도 이 점을 간파했다.⁶⁴⁾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그 계시의 인격적 요소와 객관적(명제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세계에 대해 명제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이 참된 문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⁶⁵⁾ 우리는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뿐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그 체험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⁶⁶⁾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문화 작업을 하면 기독교 문화가 가능하다.⁶⁷⁾ 개혁주의에 따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 교리, 타락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회복의 교리를 가르쳐 준다. 필자에 따르면, 이 교리들이 개혁주의 문화철학의 출발점이어야 한다.⁶⁸⁾

우선 창조교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아담에게 땅

64)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289f.

65)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5.

66)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59.

67)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3.

68) 헤르만 도예베르트, 『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옮김(서울: 크리스찬다 이제스트, 1994), 154.

을 ‘다스리고’(창 1:26, 28), ‘정복하고’(창 1:28), ‘다스리고 지키라’(창 2:15)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이 개념들이 창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게 위임된 것을 뜻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⁶⁹⁾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분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지키도록 위임하셨다. 결국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언약 관계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문화를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롬 11:36) 성경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 3:21)고 말하는 동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고전 3:23)이라고 말씀한다.⁷⁰⁾ 그리스도 안에서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골 1:14).⁷¹⁾

기독교의 창조교리는 우리가 문화를 무조건 외면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준다. 모든 문화가 우리의 통치 대상이며 돌봄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설립에 즈음한 취임강연에서 카이퍼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고 주장하지 않는 땅은 한치도 없다”라고 밝혔다.⁷²⁾ 또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교리는 만인대제사장설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격이 서로 평등

69) 웨버, 『기독교 문화관』, 31-33.

70)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15-26.

71)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40.

72) *Ibid.*, 167-169.

함을 강조해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소명의 장소로서 평등함을 강조해준다.⁷³⁾ 이는 성(聖)과 속(俗)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이원론적 신학을 배격하며, 그리스도인의 문화 책임을 강조해준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은 창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죄의 추함도 강조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해준다. 누구도 이 점에서 예외가 없다. 개혁주의의 죄론은 인간과 인간 문화가 위대할 뿐 아니라 잔인하고 비참하기도 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⁷⁴⁾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지만 인간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그의 종교성과 신 의식(神意識, *sensus deitatis*)은 간직한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피조성의 구조는 유지하지만 그 기능을 상실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사명이 죄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인간은 계속 번식하며 땅을 채우고 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일반은총 덕분에 여전히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행 17:28). 하지만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궁극적 실재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의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예술의 목적을 예술 자체에 두는 태도나, 세상에서 문화를 만드는 목적을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두는 태도가 그 예이다.⁷⁵⁾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 아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공동체에게 주

73)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02.

74) *Ibid.*, 102f.

75)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73-80.

어진 것이듯이,⁷⁶⁾ 죄로 인한 타락도 공동체의 타락으로 나타난다.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뿐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아담과 하와의 언약도 깨어졌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벗은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도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 옷을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동체의 파괴는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의 살인 사건으로도 나타난다. 가인의 후손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함으로써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못할 때 인간과 인간 문화가 보이는 덧없음을 잘 보여준다.⁷⁷⁾

기독교의 죄론은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의 예술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를 올림’(Raising of the Cross)라는 제목의 그림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는 사람을 파란 화가 베레모를 쓴 사람으로 그린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음을 표현했다. 그는 자연을 잘 묘사했지만 무조건 선한 것으로 그리지 않았으며, 인간의 위대성뿐 아니라 인간의 잔인함까지 묘사했다. 그는 인간 현실의 타락한 측면을 외면하지 않는 리얼리즘을 보여주었다.⁷⁸⁾ 이처럼 개혁신주의 신학 전통에 있는 네덜란드 화가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아름답다는 창조교리와, 타락 때문에 현재 자연이 비정상적(abnormal)이라는 죄 교리의 긴장 속에서 그림을 그렸다.⁷⁹⁾

이러한 긴장은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잘 반영된다. 성경에서 가인

76) 아담 혼자서는 자손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7) 웨버, 『기독교 문화관』, 35-38.

78) 웨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16, 118.

79) *Ibid.*, 197.

처럼 무고한 피를 흘리는 문화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사람들의 문화도 있다. 이는 모든 사회의 문화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창조의 선함과 타락의 악함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기도 한다. 인간의 경우 이 긴장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창조와 죄로 인한 타락 사이의 긴장이다.⁸⁰⁾

이 긴장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며 죄 때문에 비정상이 된 세계의 질서를 좇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악한 자들 사이에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대상이다.⁸¹⁾ 카이퍼에 따르면, 하나님은 기독교를 비정상적 세상에 대해 반정립(antithesis)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대 관계를 선언하신다. 예수님도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요 18:36),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고 말씀하셨다. 바르트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대립 관계는 사라지고 속죄의 피를 통해 전 인류가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틸에 따르면, 반정립은 인간들 사이에 한계선을 긋지 않고 삶의 원리와 이념 사이에 한계선을 긋는다.⁸²⁾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

80) 웨퍼, 『프란시스 웨퍼 전집 I: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 97.

81)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11f.

82) *Ibid.*, 266-268, 270, 274.

을 추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⁸³⁾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 인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지체로 다시 살리셨다(빌 3:21).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그리스도께서 종말론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 또한 그러한 종말론적 기대가 현재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미 이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대위임령(the Great Mission)과도 부합한다. ‘예수의 제자를 삼아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령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 삶의 모든 영역에,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하라’는 거듭난 문화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문화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에 깃든 죄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문화를 복음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딤후 4:4). 복음은 문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신비는 문화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며, 신자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문화 속에서 복음

83) 웨버, 『기독교 문화관』, 20f., 41f.

을 구현함으로써(요 1:14 참조) 복음 전파를 왜곡하기까지 하는 비정상적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⁸⁴⁾ 물론 이 과정에서 특정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였던 문화를 절대화해서는 안된다. 개혁주의에 따르면, 개혁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하듯이, 복음의 구현인 기독교 문화도 끊임없이 변혁되어야 한다. 문화를 통한 복음의 완전한 성육신은 종말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틸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영원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는 칼빈의 문화관과 일치한다.⁸⁵⁾

그리스도인은 문제 상황에서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는 문화에서 죄된 요소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문화가 기독교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의 구조를 변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⁸⁶⁾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변혁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 일은 종말에 가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⁸⁷⁾ 창조와 구속은 종말론 없이 완성되지 못한다.⁸⁸⁾ 하지만 변혁적 문화 모델을 좇는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그리스도인을 세계와 분리시키지도 않고 초역사적 구원을 바라면서 무조건 인내하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각 문화에 있는 사람을 변혁시키는 우주적이신 분이시다. 변혁적 모델은 문화 변혁 노력을 통해 문화와 삶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믿는다.⁸⁹⁾ 여기서 ‘우주적’(cosmic)은 ‘우주와 관계하는’, ‘매우 광대한’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주적 그리스도(the

84) 임성빈,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59-62.

85)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165.

86) 웨버, 『기독교 문화관』, 24-26.

87)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47.

88) 웨버, 『기독교 문화관』, 146-148.

89)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50.

cosmic Christ)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는 표현으로서, 창조와 구속을 통해 만물과 연관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⁹⁰⁾ 변혁적 모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현재 교회를 통치하시며 종말에는 만물을 통치하신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외연은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종말에는 서로 일치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현재 교회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종말에 온 우주에서 완성될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교회는 온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 문화를 세상의 문화에 반정립(antithesis)으로 제시함으로써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한편으로 문화의 옷을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부조리한 구조를 들추어내고 변혁시킨다.⁹¹⁾ 카이퍼가 창조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난 일반은총이 구속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께 기인하는 특별은총의 전제라고 주장하며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을 지배한다고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⁹²⁾ 문화사명이 인류의 대표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선교사명인 대위임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중보적 왕직(mediatorial kingship)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에서 있음을 믿는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 문화는 의미를 갖는다.⁹³⁾ 그리스도는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사용해서 교회에게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8).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

90) 웨버, 『기독교 문화관』, 8-12.

91)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 19f.

92) Van Til, 『칼빈주의 문화관』, 193f.

93) *Ibid.*, 278, 283-300.

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과 문화를 보면서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⁹⁴⁾ 그리스도인에게 문화 사명과 선교 사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까닭은 그리스도인에게 선교 사명은 곧 문화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⁹⁵⁾

5. 나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개혁주의 문화철학을 세우고자 했다. 필자에 따르면,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 세계관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죄의 추함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긴장이 종말론적 완성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계관은 현실 문화를 무조건 외면하는 방주론적 세계관이나 어설픈 종합을 통해 현실에 있는 긴장을 선불리 봉합하려는 종합론적 세계관(예: 아퀴나스)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해준다. 개혁주의 세계관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인정함으로써 현실 문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게 한다. 동시에 그 세계관은 죄의 추함을 강조함으로써 현실 문화의 무조건적 수용을 피하고, 현실 문화를 선교적 변혁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개혁주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이, 모든 문화가 우주적 그리스도의 통치 대상임을 밝힘으로써 모든 문화가 구원의 대상임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를 통해 그 세계관은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이 궁

94) *Ibid.*, 312f.

95) *Ibid.*, p327-329.

극적으로 문화명령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세계관은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종말에 온 우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우주로 확장해야 하는 선교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필자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이 글의 전반부에서 지적된 일반 문화철학의 논의의 귀결점인 문화상대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17세기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18세기에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문화 개념이 문명 개념과 구분되어 조명받기 시작했다. 필자는 그러한 문화 개념의 등장과 발전 뒤에는 보편적 합리성과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문화상대주의가 깔려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진리의 과편화를 긍정하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을 낳게 했다. 절대적 진리라는 아르키메데스적 지점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결국 인간의 합리성을 불신하고 그 합리성을 인간 욕구나 의지의 표현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바람직한 문화나 건전한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듯이 각 문화를 가치평가 없이 병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님의 인격적 자기게시에 근거를 두는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합리성을 전면 부정하고 인간의 정서적 체험만 강조하는 낭만주의와는 달리 명제적 계시의 객관성을 인정함으로써 절대적 진리의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개혁주의 문화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인격성을 강조함으로써 우주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시는 사역을 인정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이다.

■ 참고문헌 ■

- 김영한,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14-51.
- 김영한, 『한국기독교문화신학』(서울: 성광문화사, 1991).
- 뉴비긴, L., 『현대 서구문화와 기독교』, 나동광 옮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로버트 E. 웨버, 『기독교 문화관』, 이승구 옮김(서울: 엠마오, 1984).
- 맹용길, 『기독교 윤리와 생활문화』(서울: 쿰란출판사, 1993).
-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서울: 총신대출판부, 1992).
- 임성민, 『21세기 문화와 기독교』(서울: 장신대 출판부, 2004).
- 장경철, 『장경철 교수의 문화 읽기』(서울: 두란노, 2001).
- 진 에드워드 비스,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오수미 옮김(서울: 예영, 1998).
- 프란시스 쉐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서구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 김기찬 옮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프란시스 쉐퍼, 『프란시스 쉐퍼 전집 I: 기독교 철학 및 문화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
- 한스 로크마커, 『예술과 기독교』, 김현수 옮김(서울: IVP, 2002).
- 헤르만 도예베르트, 『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O'Hear, Anthony, "Culture," in Edward Craig(ed.),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London: Routledge, 1998), 747-750.
- Sanneh, Lamin, *Religion and the Variety of Culture. A Study in Origin and Practice*(Valley Forge, Penn.: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6).
- Shaw, Charles Gray, "Culture," in: Hastings, James(ed.),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Edinburgh: T & T Clark, 1908), 358-363.
- Spengler, O., *The Decline of the West*, ed. by H. Werner(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Tyler, E. B., *Primitive Culture*(London: Peter Smith Publisher, 1871).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Civilizatio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2(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1967), 273-276.

【Abstract】

A Search for Reformed Philosophy of Culture

Lee, Kyung Jik

Baekseok university, Christian philosoph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reformed philosophy of culture. I suggest that reformed philosophy of culture should be based on the reformed worldview which has the motto ‘creation, fall, redemption’. According to this worldview,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goodness of creation and the badness of sin and the tension could be overcome through fulfillment in the cosmic Christ in the end of this world. This worldview is better than the dualistic worldview according to which secular culture should be ignored and the syncretical worldview according to which secular culture and Christianity could be compatible. I suggest that reformed worldview makes one both to recognize the goodness of creation and to cope with secular cultures positively and to regard those cultures as objects of reformation by seeing the ugliness of sin in those cultures.

According to reformed worldview, all areas of life or all cultures should be governed by the cosmic Christ through whom the Great mission and the cultural mandate could coincide in the end of this

world. This shows that the mission is also the fulfillment of cultural mandate and that cultural mandate is very important in Church's mission.

I think that reformed philosophy of culture can be a way out of the difficulties of cultural relativism which resul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debate on the concept of culture in late 18th century in Europe. The concept of culture was a result of the reaction against the Enlightenment in 17th century. The Romanticism in Europe rejected the universal rationality and universal meaning in culture, stressed the particularity of cultures and paved the way for the Postmodernism according to which there is no universal truth and the rationality is a masked will for the power. I think that this development led to the fragmentation of truth and intellectual scepticism.

I suggest that the objectivity of propositional revelation approved by reformed philosophy of culture gives the Archimedean point of culture and the subjectivity of personal knowledge of God encourages Christians to cooperate with the Cosmic Christ in making and reforming cultures.

Key words: philosophy of culture, reformed tradition, universality, subjectivity, rationality, postmodernism.